

홍수심판과 노아의 방주

- 복음으로 여는 창세기 8-3대홍수-

창세기6:11-22, 마태복음24:37-39

정윤돈 목사님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끝없는 우주와 자연 만물과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과 말씀 한 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특별히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살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단에게 속아 우리의 불신앙으로 멀어졌던,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본적인 죄,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허물과 죄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케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언약을 붙잡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나의 삶으로, 현장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에는 4사건과 4인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세 번째 사건인 홍수심판과 노아의 방주에 대한 내용과 영적인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노아의 때를 말씀하면서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 때에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 최후의 심판은 우리들이 항상 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심판이다. 하지만 지금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갱신해야 한다. 노아시대처럼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도 내 자신과 가정과 후대를 위해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기 바란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아가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노아가 이렇게 훌륭한 믿음과 인격을 갖추게 된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선조의 믿음의 언약을 잘 전달 받았고, 노아를 위해서 도와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에녹과 므두셀라였다. 그 둘은 부자지간이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사람이며 므두셀라는 969세까지 최장수한 인물로서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던 해에 사망했다. 즉, 므두셀라는 약 120년 동안 노아의 영적인 멘토가 되어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노아에게 하나님은 홍수심판을 알려주시고 방주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셨다.

1. 먼저 창세기 6장에서 9장 사이에 기록된 홍수심판과 노아의 방주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홍수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나오고 있다. 근본문제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① 그들은 육신적인 정욕만 따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번성하였지만 심

지어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완전히 타락했다. 그 타락된 상징적인 모습이 창세기 6장 2절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겼던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성도와 교회의 타락이 재앙의 원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 6장 3절에는 ‘그들이 육신이 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먹음직)과 안목의 정욕(보암직)과 이생의 자랑이니(탐스려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한다. 서밋 타임을 먼저 가져야 한다. 홍수 이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머리로 하나님을 알았지만 행위로서는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② 불신자 중에는 네피림도 있었다. 네피림은 ‘타락한 자, 포악한 자’라는 뜻이다.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은 무속, 점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포악한 사람들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6장 4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은 용사요,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③ 죄악이 포악이 가득한 상태였다. 창세기 6장 6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6장 11절에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④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과 계획한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항상 악했다. 창세기 6장 5절이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심판을 작정하셨고 인간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기까지 하셨다.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2) 이러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홍수심판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그 내용이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이다. 하나님은 방주의 크기와 구조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그 방주에는 모든 종류의 짐승들을 태우라고 하셨다.

(3) 창세기 7장 7절에서 8장 19절에는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나올 때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후부터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창세기 7장 4절에는 이 비는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서도 물이 솟아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육백 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이렛날이라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 물들은 창세기 7장 24절에, 150일을 땅에 넘쳤고 창세기 8장 4절에 이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다. 또 물이 빠지는데 5개월, 땅이 마르는 데 2개월이 걸렸다. 노아의 8명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에 있었던 기간은 371일이었다.

(4)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에는 홍수 이후에 주신 언약이 기록되어 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피 제사를 드렸다. 예배부터 드린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에게 새로운 축복의 언약을 주셨다.

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처음 축복을 다시 약속하셨다. 창세기 9장 1절, 9장 7절이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②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언약하셨다. 인간은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창세기 9장 11절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언약과 복음 안에 있으면 이제 모든 재앙과 저주와 심판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다.

③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 이것이 어떤계약이다.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④ 이후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다. 창세기 9장 19절에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는 이렇게 새로운 인류의 시조, 복의 근원이 되었다.

2. 대홍수와 방주의 창조과학적 해석과 영적인 의미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1) 창조과학자들이 보는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이다. 오늘은 대홍수와 방주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다.

'노아의 방주에 지금 생존하는 모든 새들과 동물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현존하는 동물 종류는 총 17,600종으로 방주는 이보다 세 배 정도를 거뜬히 태울 수 있는 크기이다. '노아의 방주는 안전한가? 즉 잘 뜰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인하대학교 조선공학과 이경호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1992년 대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13종류의 모형배로 실험을 했는데 그 중 노아의 방주 구조가 가장 안전한 구조였다고 한다. '방주는 바다의 파도를 이길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다. 기상관측상 가장 큰 파도는 32m였다고 한다. 그런데 실험해 본 결과 노아의 방주는 43m높이의 파도도 이길 수 있는 구조였다. '방주는 지금 아라랏산에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노아의 방주를 아라랏산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약 200명 정도이다. 그들이 목격한 방주의 모양과 위치는 모두 일치했다. '대홍수의 증거는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지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땅이 물에 잠긴 흔적이 남아 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원주민들의 역사나 전설에 전 지구적인 홍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벨라미라는 학자는 대홍수에 대한 전설이 약 500개가 넘는다고 했다. 또한, 대홍수가 아니면 형성될 수 없는 지형이 전 세계 어디든지 있다. 심지어 전 세계의 사막에서도 물에 잠겼던 증거들을 수없이 찾을 수 있다. 또, 세계의 모든 지역의 높은 산에는 소금 광산이 있다. 미국에서도 지금 소금을 산에서 캐고 있다. 이 소금을 암염이라고 한다. 즉, 이 암염이 나오는 산들은 과거에 바다에 잠겼다는 증거이다. 이번 주는 다시 한 번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에 대한 자료와 영상을 공부해 보시기 바란다.

(2) 다음은 홍수심판과 노아의 방주에 대한 영적이고 복음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노아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으며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대홍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자신과 가족을 구원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

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② 그렇다면 방주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방주는 복음의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방주는 가족복음회를 의미한다. 방주는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방주를 만드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시스템은 틈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너는 고페르니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는 남은자, 램넛트를 의미한다. 방주는 3서밋을 의미한다. 방주에 탄 8명의 사람은 영적서밋, 기능서밋, 문화서밋의 응답을 받을 사람들이다. 방주는 말씀성취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었다. 방주는 절대순종이다. 방주는 믿음이다. 방주는 헌신이다. 노아는 엄청난 물질을 방주에 올린 했을 것이다. 방주는 기다림이다. 방주는 미션 홈이며 지교회이다. 방주는 24시 무시기도이며 집중이다. 방주는 보호를 의미한다. 방주는 성령인도이다. 배와 방주의 차이는 방주는 엔진이나 키가 없다는 것이다. 방주는 아무 것도 없다. 방주는 하나님이 이끄셨던 것이다. 방주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다. 오늘 날 방주는 교회를 의미한다.

오늘도 홍수심판과 노아의 방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CVDIP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들의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구원의 방주라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와 완전 복음 안에 있을 때 운명, 저주, 재앙을 피할 수 있다.
2. Vision이다. 하나님 자녀들의 변함없는 비전은 천만제자를 세워서 237 나라에 구원의 방주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RUTC운동이다.
3. Dream이다. 우리들이 전 세계와 모든 분야에 복음의 방주를 세우는 일에 24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실 것이다. 이 방주가 다락방 운동이며, 지교회운동이다.
4. Image이다. 우리들이 집중해서 기도하는 서밋 타임을 갖는다면 그 시간표가 앞당겨질 것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주간에는 다시 한 번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에 대한 창조과학자들의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란다. 그리고 방주와 대홍수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묵상해보시기 바란다. 전 세계가 지금 대홍수 심판과 같은 재앙 속에 있다. 그러나 성도여러분들은 노아와 같이 나 자신과 가정과 미래를 위해 복음의 방주를 튼튼하게 짓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중심과 마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가져다 준 불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알팍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과 하나님을 판단하여 미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완전 복음, 완전 진리 속으로 들어가서 나 자신을 먼저 살리며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진리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완전 복음의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행착오하며 넘어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보수하고 짓게 하시고 시대를 변화시킬 만한, 살릴 만한, 복의 근원이 될 만한 그러한 복음의 방주를 새롭게 지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